



한국로타리 60주년 기념 합동 地區大會

- 1987. 10. 17~18. 서울올림픽공원 체조·역도경기장



국제로타리가 탄생한지 82주년이 되는 해인 1987년 10월 17~18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한국로타리 60주년 기념 10개 지구 합동 지구대회가 개최됐다.

한국로타리는 10개 지구, 498개 클럽, 18,383명의 회원을 가진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찰스 C. 켈러 국제로타리 회장 夫妻가 참석한 가운데 16,445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로타리안 걷기 대회

- 1995. 9. 24. 올림픽공원 '88마당'

1995년 9월 24일 올림픽 공원 '88마당'에서 3650지구(총재 李東建)가 주최한 '광복 50주년 기념 장애인과 함께하는 로타리안 걷기 대회'(대회장 朴世直 전88올림픽조직위원장)가 장애인 500명과 로타리안 2,000명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로타리 財團에 대한 기여를 촉진했다.



(앞줄 왼쪽부터) 朴世直 대회장, 손명순 당시 大統領 令夫人, 李東建 총재 내외

한국로타리 창립 70주년 행사

- 1997. 11. 10.

1997년 11월 10일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서울로타리클럽(회장:宋龍儀)은 210여 명의 국내외 로타리안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한국로타리의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행사를 위하여 蔡熙秉 국제로타리 理事를 위시하여 10여 명의 전총재들과 3650지구의 林隆義 총재 및 李升雨 차기총재 등이 참석하여 서울로타리클럽의 7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자매클럽인 오사카RC과 마닐라RC는 20여 명의 방문단을 파견하였으며, 특히 마닐라RC를 대표하여 국제로타리 파코 델라가도 前부회장이 참석했다.

파코 델라가도 前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로타리의 비약적인 발전에 경의를 표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다. 또한 蔡熙秉 국제로타리 이사는 70년대의 옛 시절 서울로타리클럽 회원들과의 친교와 봉사 활동들을 회상하며, 서울로타리클럽의 70주년을 축하했다.

한국로타리의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회원들에 대한 표창에 이어 '서울로타리클럽의 70년 활동'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으며, 여흥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서울로타리클럽 가족 축하 음악공연'에서는 원일환 회원의 영부인인 도로시 언더우드 교수(이화여대)의 소프라노, 송용의 회장의 영부인이며 '조트리오' 일원인 조영방 교수와 영애 송민주양의 듀오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浦項로타리클럽(3630) 창립 40주년 - 1963. 2. 6. 창립당시



▲ 1963년 2월 6일 창립식(국내 창립 13位)에서 오실광 초대 회장과 단일지구였던 375지구 黃熙贊 총재(왼쪽)

▼ 1963년 2월 6일 포항시를 대표하는 지방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1964년 2월 14일 RI가입승인을 받은 뒤, 그해 3월 5일 시청회의실에서 가입승인 기념식(당시에는 헌장전수식)을 가졌다. 당시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朴京鎬 총재, 앞줄 가운데 黃熙贊 총재의 모습



▲ 만국기가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가입승인기념식장에서 의 국민의례 시간.

당시에는 행사시 만세삼창을 불렀다. 창립 당시부터 80년도 초반까지 회원들의 가슴에 부착한 로타리 마크가 달린 아호 리본이 이색적이다.